

인도의 책과 책방, 그리고 사서들

전문성 갖추고 있는 곳 많고 사서들 수준 높아 인상적

이재숙

인도 델리대 유학생

인도에는 유난히 읽고 싶고 갖고 싶은 책들이 많다. 어디를 가든 좋은 책, 욕심 나는 책들이 많다. 연간 약 1만5천종에 달하는 1992년 현재 인도의 어마어마한 출판량만 보더라도 그렇거니와, 인도의 책들은 이전에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고 방대한 문화를 매개로 하여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점에서 특히 강한 매력을 풍긴다.

그 매력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인도의 책방이다. 그리고 그 책방에서 마치 불박이처럼 몇십년 동안 봉직하고 있는, 책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인도의 책방 사서들이다. 다음에 인도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잘 알려진 몇 군데 책방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서들을 소개한다.

인도에서는 출판사가 자신이 낸 책들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책방을 여는 일이 보통이다. 그러다보니 출판사의 특성에 걸맞은 서점으로서의 전문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더 잘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

산스크리트어 전문출판사로 인도고대문학, 철학, 종교, 의학, 천문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산스크리트어 원문에 충실한 교재나 경전 등을 집중적으로 발간하는 '쥬캄바' 출판사가 그중에서도 대표적이다. '쥬캄바'란 '네개의 기둥'이란 뜻으로 바나라스의 한 동네 이름이며, 1882년 바나라스에서 자이끄리쉬나스와 하리다스굽타 두 사람이 처음 시작했다. 현재는 이들의 다음 대인 아들과 손자들이 운영하면서 바나라스와 델리, 뭍뜨나에 각각 센터가 설치돼 있는데, 특히 델리센터는 세계 각국의 산스크리트어 학자들을 독자로 두고 있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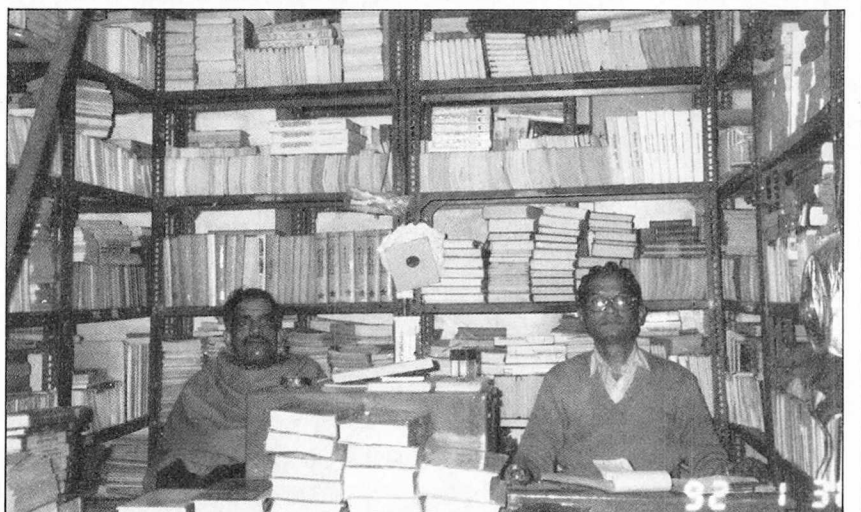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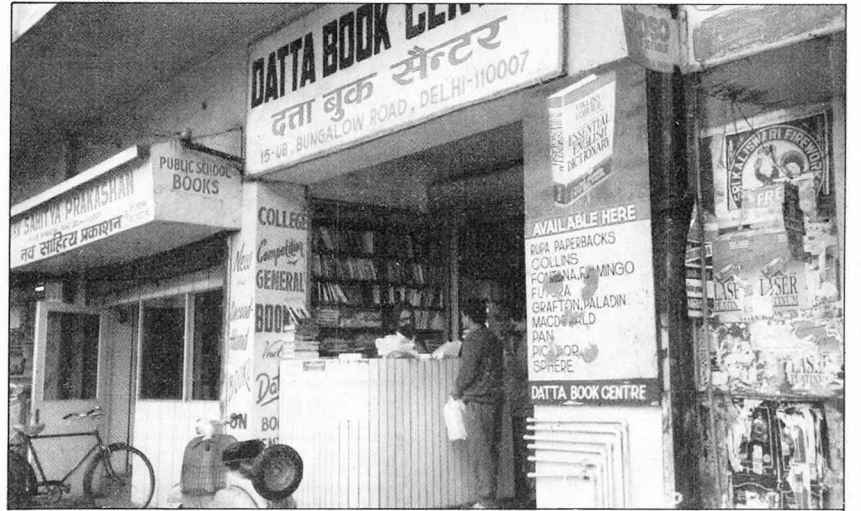
델리센터에서 1964년부터 28년간 책방사서로 일해오고 있는 씨아람씨는 이곳을 찾는 산스크리트어 학자, 학생, 일반인들을 대하면서 지금까지 쥬캄바가 발행한 수천권의 책에 대한 상세한 지식으로 충실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인도의 문화유산상을 가장 원형대로 보존·보급한다는 쥬캄바의 생각처럼 씨아람씨는 자신의 일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용어에 오히려 더 익숙해 있는 그가 풍부한 식견으로 산스크리트어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때로 책방사서가 아니라 고집 센 학자 같기도 하다. 나는 델리대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하고 있어 이곳을 가장 많이 찾은 편인데, 처음엔 그의 '강의'를 듣느라 30분, 혹은 한시간을 그와 마냥 앉아 있는 경우가 허다했을 정

도이다.

18세기 후반, 맥도널, 키즈 등 유럽학자들이 인도를 새로운 각도에서 발견, 연구함으로써 유럽을 특히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도학'의 열풍이 일어왔는데 얼마전까지 거의 독일이 그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본이 빠른 속도로 성장, 그 중심이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들 한다. 델리대 도서관의 도서 보유량이 40개의 분점과 합해서 약 백만권이라고 하는데—사실 델리대 안의 컬리지는 67개이므로 캠퍼스 밖에 있는 컬리지들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다—현재 책방에서 구할 수 없는 인도학 연구의 고전적인 논문과 저서들을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시 델리대에서 가까운 '모피랄 바나라시 다스'출판사는 산스크리트도 다루지만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인류학, 사회학 등 폭넓은 인도학 방면의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출판사라고 할 수 있다. 1903년 모피랄씨와 바나라시다스씨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여 현재 그 자손들이 뿔뜨나, 바나라스, 방갈로르, 마드라스, 델리에 각각 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산스크리트뿐 아니라 영어로 보다 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쥬캄바보다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책주문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 이 델리센터(본점)에서 1972년부터 20년간 손님들에게 책에 관한 조언을 해온 문나랄 샤르마씨도 이 일 이상의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다시 태어날 내세에도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면 이 일을 하겠노라고 말한다.

1870년 매헤르잔드와 락쉬만다스 부자가, 지금은 파키스탄에 속해 있는 라호르에서 '매헤르잔드 락쉬만다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문쉬람 마노할랄' 출판사는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분리 독립할 때 델리로 와서 1952년부터 락쉬만다스 씨의 아들인 문쉬람씨가, 아들 마노할랄씨와 함께 '문쉬람 마노할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였다. 델리에만 두군데 센터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마노할랄씨의 아들인 데벤드라 제인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모피랄 바나라시다스 출판사와 같은 영역의 산스크리트, 문학, 역사, 고대법률학, 예술, 음악, 무용, 종교, 고고학, 건축학, 언어학, 의학, 사회학, 인류학 등에 관한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바지프 미슈라씨도 1969년부터 23년을 이곳 책방을 찾는 학자·학생·



위 / 델리대 주변의 책방 풍경.
아래 / 쥬캄바서점의 내부. 왼쪽이 사서 씨아람씨.

일반인들을 대해 온 까닭에 하루종일을 앉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책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다. 외국인 학도들 사이에 미슈라씨의 명성이 자자한데, 월급이 많지 않을 텐데 일에는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브라흐만 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책과 사는 것이 더욱 천직처럼 생각되고 산스크리트 학자들이나 학생들을 위해 봉사할 때의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지요"라고 말한다.

또 한군데, 인도학 분야에 좋은 출판사로 '기타프레스'를 들 수 있는데 1850년 이전에 설립되어서 고라뿌르에 그 본점을 두고 델리에도 분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힌두교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만들고 있고 이곳에서 1964년부터 28년간 일해온 나라얀 뿌라사드씨 역시,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가끔 잘 모르고 아는체했다가 그 우렁찬 목소리로 야단을 치는 통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광경도 벌어진다.

이런 책방 사서들, 그리고 거리엔 집이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책방을 찾는 평범한 인도인들을 보면서 이곳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평생을 공부한다'는 인식이 아직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인도사람들은 옛부터 인생의 4단계를 '유아기·학생기·성인기·출가고행기'로 나누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출가하여 산속에서 고행하며 육신의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였다. 지금도 정년퇴직한 후엔 공부와 명상으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나이에 관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대학캠퍼스에 책방방을 어깨에 매고 다니는 노인들의 모습은 묘한 감동을 주기 마련이다.

※편집자 주 : 이 글을 쓴 이재숙씨는 현재 인도 델리대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지난달 인도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출판협회 총회 한국대표단의 안내를 맡았었다. 이 글을 실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 이경훈씨(보성사 대표)에게 감사사를 드린다.